

##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2)

히브리서 11:1~3

하용조 목사

### I. 서론

### II. 본론

1. 두 종류의 사람
2. 증거를 갖는 믿음
3. 믿음으로 보는 세계
4.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것

### III. 결론

#### I. 서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감으로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은 곧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되면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을 갖게 되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갖게 된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의 성격,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 II. 본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2절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믿음의 선배들에 의해서 증거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증거는 법적 증거로서 확실한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어떤 추측이나 막연한 선입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될 수 있거나 바뀌 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과 그가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그 어떤 것보다 분명한 증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 1. 두 종류의 사람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실제적인 믿음의 증거들을 보여 주었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세계 속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둘째는 이성과 경험과 상식 속에 살고 있는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삶의 내용이 자기 자신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의 철학과 자기 주관에 있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하나님과 그가 하신 말씀에 그 뿌리를 두고 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신약적으로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사역을 믿고 그것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이성의 사람들은 그 삶의 뿌리가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며, 자기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사상에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인간의 이성과 합리와 상식과 경험이 옳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믿음의 세계를 포기하고 말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합리와 이성과 경험과 이 상식의 세계에 있어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입니다. 그리고 허무입니다. 그리고 좌절입니다.

이것을 지금 현대인들이 그대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믿음의 세계를 거부해 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치, 교육,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버렸기 때문에, 이 사회는 걸잡을 수 없는 혼돈과 그리고 파괴와 절망 속으로 몰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 책임을 서로에게 묻기 시작을 했으며,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파괴되었고 전쟁과 기근과 파괴와 말할 수 없는 부조리와 부패가 인간의 죄 때문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앙이 왔을 때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괴롭힌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어쩌면 여러분 자신이 절망하고 고통을 느끼며 불안하며 삶의 보람을 찾지 못하고 허무감에 사로잡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나오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공부를 공부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이 전쟁과 기아와 폭력으로 뒤죽박죽 되어 점점 더 악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대답도 간단합니다. 세상이 하나님과 그 말씀을 버리고, 민족과 국가 그리고 인간들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2편 있는 말씀처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꿋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 때에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또한 잠언 16장 1절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사실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인간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했을지라도 결국 인간은 절망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성경의 말씀들처럼,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 없는 세계 속에서 살지 아니하고, 모두 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수 없는 약속의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생기는 어떠한 철학도 사상도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 이후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증거 된 믿음입니다.

## 2. 증거를 갖는 믿음

이 히브리서 11장에 특별히 잘 보면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 독특한 단어가 나타납니다. 그것

은 증거라는 말입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말과 증거라는 말은 굉장히 역설적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지만, 증거라는 말도 많이 나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으니라”,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13절에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도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1장의 결론과 같은 39절을 보십시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와 같이 믿음에는 반드시 증거가 따른 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증거를 갖는 일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엄청난 약속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증거처럼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가 받은 것은 막벨라 굴, 자기가 죽은 뒤에 물 힐 조그마한 땅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가리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싸게 바겐세일을 해 버렸습니다. 값싼 믿음을 너무나 남발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진짜 믿음을 찾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성경적인 진짜 믿음과 혼돈시켜 놓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믿음과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고 병이 낫는다. 믿고 잘된다. 믿고 진급된다. 믿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다고 말한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과 당신들이 추구하는 믿음의 차이가 뭐냐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영생과 영원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용기와 인내라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적 가치와 다른 바 없는 값싼 믿음을 보여 주었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을 발견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결국 우리 자신이 믿음을 너무나 값싸게 취급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진들이 증거로 받았던 그 믿음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입니다.

### 3. 믿음으로 보는 세계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이성의 세계와 합리의 세계를 초월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성을 뛰어넘어서 우주의 기원에 관해서도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과학도, 철학도 역사도 초월합니다. 여러분 과학은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것을 분명히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문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안다” 라는 표현입니다. 세상사람들은 알아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게되면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논리는 이사야서 7장 9절 하반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녕히

군게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말을 받았고, 또 어거스틴이 그 말을 받았습니다. “나는 알기 위해서 믿노라.” 참 인식이라는 것은 참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면 결코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주의 지식과 인간에 관한 모든 지식의 기원에 관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하나님이 보여주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하는 것마다 죄요 우리 안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찌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그것이 보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사람의 눈에는 전혀 이것이 이해되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엠마오 도성에서 절망하고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초월하고 특별히 인식을 초월합니다. 믿을 갖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내 마음 속에 믿게 되기 시작하면 그 눈에는 새로운 세계가 전개되기 시작하며, 새로운 영적 질서가 그의 생애 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되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되고, 세상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증거를 그 마음속에 확실히 갖게 됩니다. 어떤 폭풍과 어떤 고난과 비난과 세상의 어떤 합리적인 얘기가 그를 괴롭힌다 할찌라도, 요동치 않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 4.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것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3절 다시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모든 세계’ 라는 말입니다. 이 세계라는 단어는 코스모스가 아닙니다. ‘우주’ 가 아니라 모든 세대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을 때 이 우주의 모든 세계뿐만 아니라, 세대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고 관리되고 섭리된다고 하는 것을 내포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은 스스로 창조되거나 진화되거나 우연히 만들어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적 논리적 근거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고, 과학은 그것을 뒷받침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인식을 통해서, 합리를 통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논리적 근거를 말해도 안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주를 지으셨고, 세상과 역사를 섭리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믿음으로 그 사실을 과학적 진리보다 더 분명하게 믿게 된다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라는 표현대신, 지어졌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에는 독특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모든 것의 질서를 세우시고 배치하고, 설비하고, 완성하고 장식하는 것까지를 의미하고 있습

니다. 사람에게서 아기를 낳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모들은 그 아이를 양육하고, 키우고 보살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단순한 창조행위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모든 것을 관리하시고, 지배하시고,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의미까지를 다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알게되는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창조와 섭리는 친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용어가 발견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셨을 때, 그것은 로고스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온 ‘말씀’은 ‘레마’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레마는 로고스보다 더 강렬한 의미를 갖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레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행동을 포함하고, 그 능력을 포함하는,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6-9절입니다. “여호와와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어졌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이다. 저가 말씀하시매 이루어졌으며 명하시매 견고히 섰도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우주 창조의 기원입니다. 이 말씀으로 이루어진 사실은 이성으로, 합리로, 상식으로, 경험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알게되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알아졌을 때 더 놀라운 사실은 그것을 받은 증거보다 더 확실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천국을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마음에 천국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내가 천국 간다는 사실은 가본 사람보다 더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넷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알게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3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창조라고 하는 것은 유에서 유가 생긴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가 생긴 것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즉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과 지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믿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확신하고, 믿음으로 증거하고, 믿음으로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과학이나 철학이나 이성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이것을 갖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습시다하면 병도 나을 수 있고, 믿습시다하면 안되는 것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머무는 것이 믿음의 전부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원까지, 내세까지 보이지 않는 것까지, 바랄 수 없는 것까지, 우주의 기원까지 적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미래까지 다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내 모든 과거가 해석이 됩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병들게 하셨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나를 발견하고,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눈으로 나의 미래가 한 번에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오지 않는 미래를 온 것처럼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 가치와 세상적 개념에서 이 믿음을 생각하던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무엇을 내가 받았기 때문인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세상적으로 소망 없는 것으로 가득 차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바로 그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현실의 모든 것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 지라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믿음과 그 말씀과 그 말씀의 약속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이 고난의 세상을 용기와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걸어가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않는 것 자체가 상급입니다.

### III. 결론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무엇을 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 외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다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믿을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말씀입니다. 그가 하신 모든 일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이 말씀이 내게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감정도 아니며, 믿음은 어떤 추측도 아니고, 소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그 자체인 것을 아옵나이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확신하고 그 말씀대로 증거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